

2000년 이후 한국 남녀 패션 잡지에 표현된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한 연구

최 경 희*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A Study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Represented in Men's and Women's Fashion Magazine in Korea since 2000

Kyung Hee Choi*

Dept. of Fashion Design, Daegu University

(2007. 3. 14. 접수 : 2008. 2. 28.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ypify femininity and masculinity represented in mainstream women's and men's fashion magazines in Korea since 2000 and infer sexual ideology appearing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by content analysis with the view of plural sexuality. For the content analysis total 259 editorial fashion photography was analyzed. As the result, 5 femininities and 5 masculinities were typified, and then sexual discourse was inferred out of the frequency of each type and texts with the images.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and historical considerations of this topic, the types of sexuality represented in mainstream fashion magazines in Korea since 2000 were classified as follow.: in women's fashion magazines Traditional Femininity and Androgynous Femininity were almost similarly dominant sexuality, and Glamor Femininity, Babydoll Femininity, and Genderless sexuality were alternative. Meanwhile, in men's fashion magazines Traditional Masculinity formed clear dominant sexuality, and Macho Masculinity, Androgynous Masculinity, Adolescent Masculinity, and Genderless sexuality were alternatives. In addition, Androgynous Masculinity in women's fashion magazines occupied the highest frequency, while Glamor Femininity in men's fashion magazines did so. From this sexual discourses represented in mainstream fashion magazines in Korea since 2000 are as follow.: First, mainstream fashion in Korea sticks to the modern values preserving traditional sexual ideology even in this postmodern period of the former 21C. Second, Androgynous Femininity as another dominant femininity with Traditional Femininity connotes the change of conception of femininity in Korean society. Third, Androgynous Masculinity to females is preferred, while femininity to males is still regarded as fetish or adorned object. Fourth, the appearance of various alternative sexualities leads to pluralization of sexuality, and then fashion gradually codifies youthfulness and feminine values, such as body and sexual desire more than before.

Key words: femininity(여성성), masculinity(남성성), fashion magazine(패션 잡지), pluralization(다원화), sexual discourse(성 담론).

I. 서 론

최근 여성과 남성의 코드가 혼재되거나 역전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성과 관련된 코드가 변화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를 특징지었던 포스트모

* 교신저자 E-mail : samchi28@hanmail.net

더니즘은 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해체하였고, 사회는 갈수록 하나의 획일화된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다원성과 상대성을 추구하면서 성도 점차 다원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 세계의 균질화와 함께 한국은 경제적 풍요와 후기자본주의 소비문화 속에 위치하며,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초자유주의, 개인주의적 경향은 다양한 성 정체성이 등장할 수 있는 잠재력과 함께 전통적 성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 구조의 재편을 가져오는 듯하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담론화되고 있는 성의 문제는 재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Foucault¹⁾에 따르면, 성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담론에 의한 권력과 지식의 산물로 맥락에 따라 유동하므로 사회 내 다양한 성 정체성들 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패션은 이처럼 다원화되고 보수적인 성 정체성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물질문화의 한 형식으로, 현대 사회에서 대중매체의 확산과 함께 광범위하게 등장하고 있는 몸과 패션의 통치체계는 한국의 성 담론을 결성짓는 중요한 차원을 구성한다. 또한, 패션 잡지는 사회 내 다양한 담론을 유추해 낼 수 있는 시각적·언어적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성에 대한 지속적인 정의와 실천을 향상하기 위한 헤게모니적 장을 구성한다.

지금까지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토대로부터 출발해 주로 매체에 등장한 실증적 사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성 유형과 유형별 패션의 특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성 혹은 남성성의 어느 한 쪽의 측면만을 다루거나 양 성을 모두 다루는 경우에도 다양한 성 정체성들 간의 관계의 측면을 간과해, 패션에 표현된 성이 사회 내 담론의 영역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에 표현된 성에 대한 사적 고찰과 선행 연구들 도대로, 2000년 이후 한국의 남녀 주류 패션 잡지에 표현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유형화하고, 이들 다원화된 성 정체성들 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현대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성 담론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 잡지는 대중성을 중심으로 여성 잡

지 Vogue(Korea), Elle(Korea), 남성 잡지 GQ(Korea), Esquire(Korea)로 선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00년 이후로 새로운 세기가 갖는 공식성과 더불어 한국에서의 패션 전문 잡지의 확산시기를 고려한 것이다²⁾. 여기서 2000년 이후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20세기 후반, 특히 1980, 9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패션의 글로벌화에 의한 정보의 공유는 한국의 주류 패션 잡지에 나타난 성 담론을 단일한 역사적 맥락 하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분석 대상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의 잡지를 계절적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연간 4분기로 축소하여 결혼을 제외한 총 68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부터 총 347개의 패션 사진이 추출되었으나, 코더 간 불일치한 사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59개의 패션 사진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선정된 패션 사진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해 성 유형화를 한 후, 여성 패션 잡지와 남성 패션 잡지 각각에 등장한 유형별 빈도수와 언어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 패션의 형식과 성 담론이 추론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 대중매체를 통해 등장하고 있는 무수한 패션 담론들은 새로운 성의 출현과 다원적 성 정체성들 간의 헤게모니적 투쟁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성 이태올로기를 구축한다.

II. 패션에 표현된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한 고찰

성을 다원적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패션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어떻게 개념화 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패션에 어떠한 유형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존재해 왔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차후 내용 분석의 성 유형화를 위한 사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성의 개념은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보유한다. 구조주의 페미니즘의 시각은 주로 성별(gender)의 문제를 다루며, 이는 성차와 성별의 구분을 통해 사회구조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론 주장함으로써 성차(sex)와 성별 관계의 자의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1) Michel Foucault, *성의 역사 - 제 1권 삶의 의지*, 이규희 역 (서울: 나남출판, 1997), pp. 36-51.

2) 선정된 잡지들의 창간 연도는 Vogue(Korea)가 1996년, Elle(Korea) 및 Esquire(Korea)가 1995년, GQ(Korea)가 2001년에 해당해, 한국에서 패션 잡지의 유입 시기는 주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나타난다.

남성우월적 관계의 성별 양상은 이분법적 구도를 초래해, 다양한 문화적 매커니즘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문화/자연, 정신/몸, 행동하기/존재하기, 모험/사랑, 관음적 응시자/불신적 욕망의 대상, 성취와 전문성/몸과 패션, 공적 영역/사적 영역 등의 인위적 대비를 재현한다³⁾. 여기서 특히 페미니즘 영화이론에서 문제가 된 성별화 된 응시는 바라보는 자의 위치를 본질적으로 권력과 동일시함으로써 응시자로서의 남성은 응시의 대상이 되는 여성보다 본질적으로 강함을 드러내며, 문화-공적 영역-남성 대 자연-사적 영역-여성의 이분법적 성별 환원은 은유적으로 사적인 것을 종속적 집단으로 상정해 가지 절하시키는 반면, 공적인 것에는 공식 담론, 즉 가부장적 상징 질서를 위치시킴으로써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의 관계를 합법화시킨다⁴⁾.

그러나 이와 같은 이분법적 성별 구성은 단선적 이라기보다는 변증법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구조주의 페미니즘은 맥락적인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난 사회 내 다양한 유형의 성들 간에 작동하는 권력의 문제를 설명해 내지 못한다. 이 점에서 Foucault의 담론과 정체성의 테크놀로지에 관한 사고는 유용하다. 후기구조주의자로서 Foucault는 성(sexuality)을 생물학적 성이나 사회적 성별을 포함한 성적인 것의 전체로,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성을 담론화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권력과 지식 체계의 산물로 바라봄으로써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임을 주장한다. 여기에서 사회 내 담론은 항상 저항의 영역을 시니므로 정체성의 테크놀로지는 다원적 성 유형들 간에 존재하는 시때와 종속의 권력관계의 재현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성 유형화는 이분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연속체를 재현하는 행위의 양식으로 다원적 시각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패션에 표현된 여성성과 남성성은 특수한 역사적 시기의 규율담론에 의해 규정되는 다원적인 성들 간의 권력의 그늘막 속에서 이해될 필요성이 제

기된다.

19세기 중반 복식 상 확고한 성차가 성립되기 이전까지 역사적으로 패션 담론들은 주로 여성성과 결합되어, 여성은 번덕스러운 패션, 허영적 과시, 탐닉하는 나르시시즘과 결합되어 왔다. Tseëlon⁵⁾의 패션과 여성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고대 신화 속 원형적 여성상은 남자를 현혹시켜 파과로 이끄는 수단으로 자신의 미모와 장식을 이용해 위장하는 방식으로 그려지는데, 이로부터 기독교적 유럽의 역사에서 악덕으로 여겨진 장식은 여성의 본질에 관한 사고와 융합된다. Tseëlon은 여성에 대한 이러한 태도의 중심에는 기독교적 교의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부인되어야 했던 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본다. 기독교는 여성의 색수열리터를 통제하기 위해 복식의 정숙성에 관한 담론을 생산해 내지만 여성의 몸에 잠재된 색수열리터는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는 것으로 장식을 통해 남게 되었고, 이로부터 정숙성과 노출증의 유희는 주로 여성 패션을 통해 나타났으며, 여성성은 몸과 패션뿐 아니라 사소함, 약함, 허영, 심지어 사악함에까지 근접하게 된다.

그러나 고대에는 복식이 성보다는 계급을 현저하게 부각시켰고, 중세 유럽에서 남녀 복식에 성차가 부각되기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근세까지 남녀 복식은 모두 호화로운 색상과 소재의 의복에 화려한 장식을 사용하여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남녀 복식에 분명한 성차가 나타나면서 패션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분법적 구조가 정립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Davidoff와 Catherine Hall⁶⁾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에서 남녀 성차의 강화를 통해 남성성이 정의된 방식을 제시한다. 이 시기 중산층 노동의 전문화와 기독교적 교의의 실천과 함께 나타난 프로테스탄트 관념의 발전은 전문성, 성실성, 도덕성 등을 부르주아 남성성으로 위장하였고, 이는 Flügel이 언급한 '남성의 대 포기(The great masculine renunciation)'를 이끌

3) 최경희, "현대 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 26.

4) Efrat Tseëlon, *The Masque of Femininity: The Presentation of Woman in Everyday Life*, (London · Thousand Oaks · New Delhi: Sage publications, 1995), pp. 68-75.

5) *Ibid.*, pp. 12-16.

6) Davidoff and Catherine Hall, Stuart Hall (ed),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 (London: Sage, The Open University, 1997), pp. 298-300에서 재인용.

어 중산층 남성 복식의 겸소함과 결합하게 되는데, 이러한 복식 코드는 남녀 복식에 분명한 경계를 만든다. 그리고 Hollander⁷⁾는 남성 수트를 이러한 남성성을 구현하는 시각적 상징물로 간주하는데, 이는 그리스의 이상화된 남성의 몸의 형태를 따른 것으로 성실, 절제, 근면, 초인함 등을 의미하는 남성의 권력의 상징물이었다. 그러므로 서구의 역사에서 여성은 특히 기독교적 교회의 영향으로 몸, 패션, 섹슈얼리티와 결합되었고, 남성은 정신과 진리, 힘과 권위와 자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사실상 이는 여성과 남성의 자연적 본질이라기보다는 이 시기에 나타난 무수한 담론들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oucault의 다원적 성에 대한 시각에서 패션에 표현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살펴보면, 19세기 후반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패션에는 이분법적 성별 이외에도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성 정체성들이 혼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후반 모더니티의 시작, 부르주아 계급의 부상, 산업혁명으로 인한 성 역할의 분화 등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주류 패션은 수트를 중심으로 한 강하고 자율적이며 지배하는 남성성을 중심점으로, 크리놀런과 비슬 등이와는 대립되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여성 패션으로 관능적, 모성적, 종속적인 여성성을 형성해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를 구축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러한 주류 패션 외에도 반패션을 통한 저항적 성 또한 존재하였다. 즉, 여성의 경우 유티주의 운동으로 나타난 미적 복식은 관능성과 개성과 함께 보헤미안 여성성을, 그리고 이성주의 복식운동에 나타난 남성복 스타일의 차용은 자율성과 도덕성과 함께 독립적 여성성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댄디 룩의 세련되고 과시적이며 나르시스트적 취향과 로맨틱 보헤미안 룩의 에로틱한 함축과 장식성은 저항적 남성성을 구성한다. 그러나 당시 지배담론은 이들 저항적 성을 사회적으로 매제시킴으로써 합법적으로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의 이분법적인 성을 규범화하는데, 이로부터 19세기 후반의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는 이성애적 부르주아 남성의 권위를 우선시한 자본주의적 가치로, 이 시기의 성에 대한 빅토리아 담론

들의 무수한 확산과 강조가 이분법적 패션을 구성한다.

20세기 전반에는 양 차 대진으로 인한 성 역할의 변화가 모더니티의 이상과 결합하여 이전의 반패션이 대안적 성을 통해 주류화 됨으로써 이전보다 다양한 성 정체성들이 등장한다. 모더니티의 사고와 여성의 사회 진출로 여성 패션은 밀리터리 룩, 뽀아페 룩, 플라퍼 룩 등 단순하고 기능적인 패션 형식들을 통해 성적 쾌락을 즐기며 날씬함과 젊음을 지향하는 독립적인 여성성을 재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주류 패션화된 이러한 대안적 여성성은 또 다시 성적 대상화나 날씬한 몸에 대한 새로운 규율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며, 전후 대공황, 파시즘의 출현, 남성성의 위기 등과 함께 나타난 보수주의적 성 담론은 전통적 여성성을 답습한 20세기 초 에드워드안 룩, 1930년대의 롱 앤 슬림 룩이나 1950년대의 뉴 룩과 같은 전통적 초여성성을 재현하였고, 할리웃 영화산업의 발달은 이러한 여성 패션을 글래머 여성성으로도 결합시킨다. 한편, 전쟁으로 인한 남성의 위기는 유니폼으로 구현된 군사적 남성성 이후 남성 패션에서 이전보다 더욱 일과 성공을 코드화 한 엄격한 남성 수트를 확산시켜 남성의 지배적 위치를 가시화하려 하였고, 비록 남성 패션에도 비공식화나 관능적 암시를 통해 대안적 성이 등장하기는 하나, 대체로 전통적 남성성을 중심으로 느린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20세기 전반의 패션에 표현된 성은 다양한 대안들을 통해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에 변화를 가져오는 듯하지만, 대안적 성의 지배담론으로의 지속적인 전유와 전통적 초여성성의 재현 그리고 여전히 헤게모니적 위치를 차지하는 전통적 남성성의 위치를 통해 이 시기를 전반적으로 저항보다는 순응의 시대로 구성한다.

20세기 후반에는 반문화와 제 2과 페미니즘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성 정치적 운동,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과 함께 후기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대안적 저항적 성의 등장과 함께 성의 다원화가 진행된다. 이 시기 패션에는 전통적 성 이외에도 미니스커트나 유니섹스 룩에 나타난 사춘기의 미성숙한 성과, 유니섹스 룩 이후에도 지속된 앤

7) Anne Hollander, *Sex and Suits*, (New York · Tokyo · London: Kodansha International, 1995), pp. 42-74.

드로지너스 룩, 켈러리스 룩 등에 나타난 중성적, 양성적, 그리고 무성적 성 등의 다양한 대안적 성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하위 문화로부터 등장한 핑크 룩, 크로스드레싱, 복상 도착 등의 해체적 성과 같은 새로운 저항적 성이 출현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션 이미지는 여성에게 젊음과 자율적, 주체적 사고, 남녀 평등과 사회 참여를 향한 열망을, 그리고 남성에게는 힘과 권위라기보다는 젊음과 섹슈얼리티의 암시를 통한 정체성 표현을 코드화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패션에 표현된 대안적, 저항적 성은 후기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새로운 분의 통치체계에 구속받는 성적으로 대상화된 여성성을 암시해 여성성을 섹슈얼리티와 동일시하던 기존의 구조를 반복하였고, 하위 문화 패션에 나타난 저항적 의미는 다시 지배담론으로 전유됨으로써 전통적 성 담론의 지속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당시 보수주의자들의 도덕적 담론의 유포와 남성성의 위기 의식으로부터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무엇보다 수트룩 중심으로 한 남성 주류 패션은 이를 가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성은 지속적으로 대안적 성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전보다 단순성과 비공식성 그리고 관능성을 가미하게 되는 변화를 보이는데, 이로부터 20세기 후반의 패션에 표현된 성은 보다 다원화된 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각 성 정체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20세기 후반에 급진적으로 성의 해방이나 해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사고이나, 과거에 비해 다양한 새로운 성들이 출현하면서 기존의 구조와 충돌하기 시작하였고, 하위 문화 주체들의 새로운 패션 실천은 다음 역사적 시기의 해체모니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19세기 후반 이후의 사적 고찰을 통해 본 성 유형은 여성의 경우 전통적 여성성, 글래머 여성성, 양성적 여성성, 미성숙한 여성성, 부정적 성으로, 그리고 남성의 경우 전통적 남성성, 군사적 혹은 마조적 남성성, 양성적 남성성, 청소년 남

성성, 무성적 성으로 유형화되며, 그 외에 20세기 후반에 새로 등장한 저항적 성으로 해체적 성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III. 선행 연구

내용 분석을 위한 성 유형화의 참조로서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복식에 나타난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과 주제별 성 유형과 복식의 특징은 <표 1~3>과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여성성 유형화의 경우, 최현숙⁸⁾은 페미니즘 논의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여성성, 페미니즘 여성성,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으로 분류하였다. 전통적 여성성은 19세기에 확립된 코르셋과 벨 스커트, 20세기 뉴 룩 등의 패션으로, 모성성, 관능성, 종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페미니즘 여성성은 패션에서 19세기 후반 유행의 복식이나 이상주의 복식에서 출발해 20세기 플레퍼 룩, 유니섹스 룩 등 남성적 패션으로 나타나 반모성성, 반종속성, 비판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포스트페미니즘 여성성은 성별의 차이를 옹호하는 본질주의 페미니즘과 차이를 무효화시키고 이를 해체하려는 해체주의 페미니즘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며, 패션에서 관능성과 페티시즘으로 여성성을 강조하려는 경향과 성적 특질을 제거하거나 양성적 특질을 모두 포함시키려는 중성적 혹은 양성적 복식으로 나타난다. 김정선·김민자⁹⁾는 19세기 유행 복식과 반유행 복식에 나타난 여성성을 기준으로, 종속적 여성성, 관능적 여성성, 모성적 여성성, 관능적 개성적 여성성, 자율적 도덕적 여성성으로 유형화하였다. 여기서 종속적, 관능적, 모성적 여성성은 빅토리아 시대 유행 복식에 나타난 여성성을 특징짓는 반면, 관능적 개성적 여성성은 유행주의에서 나온 미적 복식에서, 자율적 도덕적 여성성은 이상주의 복식에서 나온 남성 복식 스타일에서 나타난다. 김은희¹⁰⁾는 20세기 여성의 이상적 신체

8) 최현숙,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9) 김정선, 김민자, “빅토리아시대 유행 복식과 반유행 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I),” 복식 51권 2호 (2001). 김정선, 김민자, “빅토리아시대 유행 복식과 반유행 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II),” 복식 51권 6호 (2001).

〈표 1〉 복식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제목	저자	년도	여성성의 유형	복식의 특징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최현숙	2000	전통적 여성성	19세기에 확립된 코르셋과 벨 스커트, 20세기 뉴 룩 등 모성성, 관능성, 종속성을 특징으로 함
			페미니즘 여성성	20세기 플레퍼 룩, 유니섹스 룩 등 반모성적, 반종속적, 관능성이 배제된 남성적 패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	여성성을 강조한 본질주의 페미니즘의 관능성과 페티시즘, 양성성을 제시한 해체주의 페미니즘의 증정적 패션으로 구분
빅토리아시대 유행 복식과 반유행 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김정선, 김민자	2001	종속적 여성성	코르셋에 의한 압박과 크리놀란의 상징적 부동성과 하체의 은폐
			관능적 여성성	화려한 장식성, 데콜리쥬에 의한 과도한 노출, 가는 허리, 허벅지와 둔부의 강조 등 재단상 성적 과시
			모성적 여성성	크리놀란의 거대한 스커트와 자궁을 은유하는 버슬실루엣
			관능적 개성적 여성성	유미주의 복식에서 나온 자연스런 H 실루엣
			자율적 노년적 여성성	이성주의 복식에서 나온 신체의 은폐, 활동성과 기능성, 단순성, 위생성
20세기에 나타난 여성의 이상적 신체미와 패션에 관한 연구	김은희	2001	해방된 여성	소년과 같은 신체와 해방된 여성상, 샤넬의 댄디 룩
			전통적 여성	전통적 여성성의 부활, 다올의 뉴 룩
			물신화된 여성	물신화된 신체와 자신감의 표현, 골티에의 코르셋 패션
복식에 표현된 여성의 몸 이미지	김은희	2002	전통적 여성성	전통적인 아내와 어머니 상으로 수동성, 모성성, 관능성, 패션에서 19세기의 크리놀란, 머슴, 20세기 아르누보 룩, 뉴 룩, 페미니즘 룩
			능동적 여성성	남성의 역할을 도입한 능동성, 건강성, 남성성을 지향한 능동적 여성성으로 구분하였다.

미와 패션을 구현한 디자이너 사레별로, 샤넬의 댄디 룩에 나타난 해방된 여성성, 다올의 뉴룩에서 부활된 전통적 여성성, 골티에의 코르셋 패션에 나타난 물신화된 여성성으로 구분했다. 또 다른 연구¹¹⁾인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여성의 몸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아내와 어머니 상으로 수동성, 모성성, 관능성을 견지한 전통적 여성성과 남성의 역할을 도입해 능동성, 건강성, 남성성을 지향한 능동적 여성성으로 구분하였다.

〈표 2〉를 살펴보면 남성성의 경우, 이민선^{12)·14)}

은 19세기 중반 이후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의 이미지를 크게 남성적 이미지와 양성적 이미지로 구분하는데, 19세기 중반 이후 모더니즘의 시기에 남성이 성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서 남성에게 나르시시즘과 노출증이 억제된 시기에는 남성적 이미지가,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여성에게 보고자하는 성적 욕구가 허용되는 시기에 개인적 집단적 불일치를 상징하는 패션에서 양성적 이미지가 부각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가부장제,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

10) 김은희, "20세기에 나타난 여성의 이상적 신체미와 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 25권 2호 (2001).

11) 김은희, "복식에 표현된 여성의 몸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2) 이민선,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19세기 중반이후를 중심으로-", 복식 23권 6호 (1999).

13) 이민선, "가부장제도,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남성성," 복식 25권 2호 (2001).

14) 이민선,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표 2> 복식에 나타난 남성성

연구 제목	저자	년도	남성성의 유형	복식의 특징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19세기 중반 이후를 중심으로 -	이민선	1999	남성적 남성성	우월한 사회적 지위 표현
			양성적 남성성	획일적 스타일에 대한 저항
가부장제도,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남성성	이민선	2001a	권위적이고 강건한 남성성	가부장제 하에서 수드는 완전성 추구
			이성성을 도입한 코믹한 남성성	페미니즘 하에서 여성복식 요소의 일부를 도입
			해방적 남성성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하에서 여성과 하류계층의 복식요소 도입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이민선	2001b	권위성	부르주아 주체의 이상화 된 신체 구현, 무채색, 소재 자체의 미, 바지의 활동성
			강건성	가부장제 주체로 남녀 차이와 남근의 강조를 위해 바지, 넥타이, 모자, 근육의 노출, 패딩 등을 사용
			근대성	서양 제국주의 주체로 사실적인 그리스 영웅의 신체구조 재현
			유희성	하위 문화 집단 주체로 민티지 록이나 찢어지고 탈색된 옷, 잉 룩, 여성적 스타일, 정장의 캐주얼화
			반능성	페미니스트 주체로 장식, 노출, 페티시 장식, 여성적 스타일, 파편화 된 몸 등을 드러냄
			다문화성	동양 및 아프리카 주체로 아프리카, 힙합 스타일, 문신, 미구조적 스타일, 유채색, 혼혈 모델 등의 사용
			가상성	사이버 사회 주체로 사이버 펑크 록, 그린지 록, 브리콜라주 기법 등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의 표현양상	송방진, 채금석	2001	동성애 남성성	미국 전통적 남성상과 나르시즘적 이미지
			영웅적 남성성	수드에 스포츠웨어 특징을 도입하여 강인한 남성성과 전문성 강조
			양성적 남성성	이성적 장식 아이텐이나 스커트볼 도입해 성 구분의 무의미와 성적 욕망 표현
			성 도착적 남성성	이성복식이나 아이템에 성적 환상을 부여, 관능적 연출
뉴직비디오 의상에 나타난 남성성 이미지 연구 -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도희, 양숙희	2004	권위적 남성성	보수적, 과시적
			성적 대상화 된 남성성	취능적, 양성적, 퇴폐적 이미지
			범 창조적 남성성	유희적, 사이버그, 악마적 이미지

미니즘에 따른 남성 패션에 표현된 남성성을 가부장제 하의 권위적이고 강건한 남성성, 페미니즘 하의 여성성을 도입한 코믹한 남성성,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하의 해방적 남성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19세기 후반 모더니즘의 시대에 나타난 남성의 미적 이미지를 권위성, 강건성, 근대성에 두었고,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난 남성의 미적 이미지를 유희성, 관능성, 다문화성, 가상성으로 규정하면서 갈수록 다양화되어가는 남성성을 제시한다. 송명진·채금식¹⁵⁾은 20세기 후반 남성 패션의 성 정체성 표현 양상을 비국 전통적 남성상과 나르시즘적 이미지의 동성애 남성성, 수트에 스포츠웨어 특성을 도입하여 강인함과 전분성을 강조한 영웅적 남성성, 여성복 요소를 도입해 성 구분의 부의미와 성적 욕망을 표출한 양성적 남성성, 이성 복식이나 아이টে미 성적 환상을 부여해 관능적 연출을 한 성 도착적 남성성으로 구분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성에 대한 절대성을 부인하고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다면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도희·양숙희¹⁶⁾는 남성성을 전형적 남성성, 성적 대상화된 남성성, 범장조적 남성성으로 유형화하는데, 전형적 남성성은 보수적 이미지와 과시적 이미지를 보이며, 성적 대상화된 남성성은 관능적 이미지, 양성적 이미지, 퇴폐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범장조적 남성성은 유희적 이미지, 사이버그 이미지, 악마적 이미지로 구분된다.

〈표 3〉을 살펴보면, 정세희·양숙희¹⁷⁾는 현대 서구 영화에 나타난 여성성과 남성성을 패션 이미지로 세분화시켰다. 여기서 여성성은 남편의 부를 과시하고 연약하며 우아한 전형적 여성, 매혹적인 판프과

탈과 성적 해방과 사회적 독립의 이미지인 말괄량이 스타일로 섹슈얼리티를 강조한 여성, 본질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남성적 스타일이나 부치 스타일로 나타난 남성화된 여성, 사회문화적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 남녀 복식 특성을 자유롭게 교차시킨 양성화된 여성으로 구분되며, 남성성은 19세기부터 수트로 상징되는 전형적 남성, 1960, 70년대의 거칠고 반항적인 남성으로 여성의 응시의 대상이 된 성적 대상화된 남성, 1980, 90년대에 불과 외모에 대한 나르시즘을 드러낸 신남성, 탈여성화된 남성으로 건장함과 힘을 강조하는 초남성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에 나타난 여성성의 유형은 19세기에 개념화된 전통적 혹은 전형적 여성성, 남성화된 여성이나 능동적 혹은 해방적 여성성, 관능성과 섹슈얼리티를 강조한 여성성,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따른 성의 해체나 절충을 표현한 여성성으로 구분되며, 남성성의 유형은 19세기의 전통적 혹은 전형적 남성성, 관능적이고 성적 대상화된 남성성, 남성다움을 과장한 남성성, 절충적 해체적 이미지의 남성성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로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유형화 및 패션 혹은 복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성 유형은 첫째, 19세기에 코르셋과 벨스

〈표 3〉 복식에 나타난 여성성과 남성성

연구제목	저자	년도	여성성		남성성	
			유형	복식의 특징	유형	복식의 특징
1930~1990년대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I), (II) - 남성성, 여성성을 중심으로 -	정세희, 양숙희	2002	전형적 여성	곱슬거리는 금발머리, 미소, 우아한 의상	전형적 남성	보수적 수트로 성공과 남성다움 상징
			섹슈얼리티를 강조한 여성	긴 눈썹, 짙은 메이크업, 도발적이고 유희적인 차림새	성적 대상화된 남성	가죽, 진, 티셔츠 등으로 신체 노출
			남성화된 여성	남성복이나 남성아이템 일부 차용	신남성	외모와 나르시즘, 자아추구 수단
			양성화된 여성	남녀 복식의 특성을 교차시킨 의복	초남성	탈 여성화된 전통적인 강인한 남성

15) 송명진, 채금식,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의 표현양상,” 복식 25권 2호 (2001).
 16) 도희, 양숙희, “뮤직비디오 의상에 나타난 남성 이미지 연구-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복식 54권 3호 (2004).
 17) 정세희, 양숙희, “1930~1990년대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I), (II)-남성성, 여성성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40권 5호 (2002).

커트, 20세기에 뉴 룩으로 나타난 19세기에 개념화된 전통적 혹은 전형적 여성성, 둘째, 남성화된 여성이나 능동적 혹은 해방적 여성으로 구분된, 남성복식 아이템이나 요소 혹은 이미지를 도입한 여성성, 셋째, 여성의 관능성과 섹슈얼리티를 강조한 여성성, 넷째, 페티시즘이나 양성성, 성의 해체를 표현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따른 성의 해체나 절충을 표현한 여성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남성성의 유형은 첫째, 역시 19세기의 보수적이고 엄숙한 남성 수트를 대대로 남성의 권위와 강건성, 우월성을 표현한 전통적 혹은 전형적 남성성, 둘째, 남성의 관능성과 나르시시즘, 성적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여성복식 아이템이나 여성복식의 요소 혹은 이미지를 도입한 성적 대상화된 남성성, 셋째, 탈여성화된 남성의 강인함과 수트 외에 스포츠 웨어를 중심으로 남성다움을 과장한 남성성, 넷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부터 여성, 하류 계층, 하위 문화, 미서구권 등 서구중심적 상류계급 남성의 보편적 특성뿐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의 절충적 해체적 이미지의 남성성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선행 연구를 통해 본 패션에 나타난 보편적인 성 유형화는 Rubinstein¹⁸⁾이 에로티시즘의 이미지를 우아성, 미성숙성, 남성성, 기독교적 비정숙성, 육감성, 페티시성으로 범주화했던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IV. 2000년 이후 한국 패션 잡지에 표현된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한 내용 분석

2000년 이후의 대중성 있는 여성 패션 잡지와 남성 패션 잡지에 나타난 패션 사진을 통해 현대 패션에 표현된 여성성과 남성성의 유형 및 빈도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 분석을 위해

2005년 8월과 2006년 2월에 걸쳐 여성 패션 잡지(Vogue Korea, Elle Korea) 217편, 남성 패션 잡지(GQ Korea, Esquire Korea) 130편의 총 347편이 조사되었는데, 이들 중 여성 잡지에 남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36편, 남성 잡지에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57편으로 나타났다. 성 유형별 코딩에서는 각 패션 사진의 언어 기호와 시각 기호가 모두 고려되었지만, 개관성 차원에서 언어적 요소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표 4>는 총 347편의 패션 사진 별로 사진작가와 편집자, 모델, 타이틀과 서브타이틀, 세부 설명이나 본문에 나타난 언어 기호를 시각 기호와 대조하면서 성 유형별 코딩을 했던 방식을 제시한다. 347편의 패션 사진은 3인으로 구성된 패션 분야의 전문가들(패션 디자인 전공 강사 1인, 대학원생 2인)에 의해 코딩되었으며, 코딩 간 일치도는 81.9%의 신뢰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347편의 패션 사진 중 코더 간에 불일치한 사진들과 2개 이상의 이미지가 중첩된 사진들을 제외한 후, 여성 패션 잡지 156개, 남성 패션 잡지 103개의 총 259개의 패션 사진이 내용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들 중 여성 패션 잡지에 남성이 등장한 것은 25개, 남성 패션 잡지에 여성이 등장한 것은 47개로 나타났다.

패션 잡지에 나타난 성 유형화는 19세기 이후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사적 고찰과 선행 연구에서의 성 유형들을 근간으로, 다음과 같이 각각 5가지의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구분하였다. 즉, 여성의 경우 전통적 여성성, 글래머 여성성, 양성적 여성성, 미성숙한 여성성, 무성적 성으로, 그리고 남성의 경우 전통적 남성성, 마초적 남성성, 양성적 남성성, 청소년 남성성, 무성적 성으로 구분된다. 각 패션 잡지에 나타난 유형별 빈도와 비율은 <표 5, 6>과 같다.

그리고 여성 패션 잡지와 남성 패션 잡지 각각에 나타난 여성성과 남성성 유형의 빈도를 통해 다양한

<표 4> 선정된 패션 사진에 나타난 언어내용과 성 유형별 코딩표

잡지명/ 년월	사진작가/ 편집자	모델	타이틀	서브타이틀	세부설명 혹은 본문의 형용사	주요 테마	패션 이미지/ 성 관련 형용사	성 유형화 (여성성/남성성)		
								코더 1	코더 2	코더 3

18) Ruth P. Rubinstein, *Dress codes: Meanings and messages in American culture* (Boulder · San Francisco · Oxford: Westview press, 1995).

여성성과 남성성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 봄으로써 다원적 성에 대한 시각에서 현대 패션에 표현된 성을 해석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여성 패션 잡지의 경우, 여성은 전통적 여성성과 양성적 여성성이 유사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양성적 남성성이 가장 많이 등장했다. 이 점에서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은 19세기 중반에 개념화된 이분법적 성개념과 비교해 볼 때, 지배담론에서 전통적 여성을 선회할 정도로 패션에서 자주 체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 잡지에서 남성은 관능적이고 부드러운 남성의 비율이 컸는데, 이는 여성에게 양성적 남성성에 대한 가치가 증가했음을 암시한다. 남성 패션 잡지의 경우, 압도적으로 전통적 남성성의 비율이 컸는데, 이는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우월적인 보수적 가치가 여전히 지배담론을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양성적 남성성이 그 다음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남성에게도 점차 나타나는 몸과 외모에 대한 관심의 확산을 암시한다. 청소년 남성성은 그리 높은 비율은 아니나 연구 대상이 주류 성인 남성 잡지

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젊음에 대한 선호 가치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성 잡지에서 여성은 무엇보다 글래머 여성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남성에게 여성은 아직도 상당 부분 성적, 물신적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패션 잡지에 나타난 성 정체성은 남녀 잡지 별로 '여성적인'과 '남성적인'이라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대상 단어들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표 7>과 같이, 남녀 잡지에서 성 정체성을 지칭하는 대부분의 용어들은 19세기 후반에 이분법적으로 개념화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함축한다. 즉, 여성은 장식적이고 화려하며 관능적인 숙녀의 이미지로, 그리고 남성은 강하고 근엄하며 이성적인 신사의 이미지로 묘사된다.

다음은 위에서 코딩된 성 유형별 패션 사진의 언어적 요소들(타이틀, 서브타이틀, 세부 설명, 본문 등)로 부터 패션 이미지와 성 관련 형용사의 빈도수, 그리고 주요 패션 디자인 요소들을 조사한 것이다¹⁹⁾.

<표 5> 여성 패션 잡지에 나타난 여성성과 남성성의 유형

여성성	전통적 여성성	글래머 여성성	양성적 여성성	미성숙한 여성성	무성적 성	계
빈도	60	19	57	16	4	156
백분율(%)	38.4	12.2	36.5	10.3	2.6	100
남성성	전통적 남성성	마초적 남성성	양성적 남성성	청소년 남성성	무성적 성	계
빈도	1	5	12	5	2	25
백분율(%)	4	20	48	20	8	100

<표 6> 남성 패션 잡지에 나타난 남성성과 여성성의 유형

남성성	전통적 남성성	마초적 남성성	양성적 남성성	청소년 남성성	무성적 성	계
빈도	37	15	26	16	9	156
백분율(%)	36	14.6	25.2	15.5	8.7	100
여성성	전통적 여성성	글래머 여성성	양성적 여성성	미성숙한 여성성	무성적 성	계
빈도	8	24	5	4	6	47
백분율(%)	17	51.1	10.6	8.5	12.8	100

19) 내용분석에 나타난 빈도수는 식어도 3회 이상 반복된 형용사들만을 기재한 것이며, 같은 줄에 배치한 형용사들은 비교적 유사한 의미의 형용사들로 구성된 것이다. 또한, 표에서 패션 이미지와 성 관련 형용사의 구분은 수식을 받는 명사의 표현 대상에 따라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무성적 성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분이 무의미하므로 여성 잡지와 남성 잡지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남성성 유형 다음에서 한꺼번에 제시하였다.

<표 7> 여성 패션 잡지와 남성 패션 잡지의 싱 정체성 관련 용어

성	여성 패션 잡지	남성 패션 잡지
여성적인	우아한, 로맨틱, 부드러운, 곡선적인, 섬세한, 하늘하늘한, 사랑스러운, 순수한, 클래식한, 전통에 가치를 두는, 청차한, 도도한, 완벽한, 볼스커트, 미니드레스, 쉬폰, 새틴, 퍼프 소매, 리본, 서링, 자수, 레이스, 진주 : 색시한, 강렬한, 몸을 강조한, 어깨를 드러내는, 가는	아름다운, 젊은, 섹시한, 비치는 소재, 피지는 스커트
남성적인	무거운, 날카로운, 직선적인	강인한, 와일드한, 파워가 느껴지는, 때반하지 않는, 당당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희생과 배려가 있는, 기분을 시키는, 미섭하지 않은, 투철한, 영리한, 토론하는, 여자에게 사상한, 성돈뉘, 근엄한, 축구, 블랙 수트 ; 섹시한

이러한 패션 잡지에 나타난 담론들로부터 각 다원적 성들이 현대 패션에서 갖는 의미를 추론하고자 하였다.

1. 여성 패션 잡지에 나타난 성

1) 전통적 여성성

여성 패션 잡지에는 특히 2004년 레이디라이프 룩의 브랜드와 함께 전통적 여성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요 테마는 여성성과 패션 스타일을 중심으로 에로티시즘, 노스탤지이, 라이프스타일, 계급, 연령 등이 주로 나타났고, 기타 여행, 가사일 등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여성성의 주요 패션 이미지, 성 관련 행동사는 <표 8>과 같으며, 패션 디자인 요소는 <표 9>와 같다. 이로부터 전통적 여성성을 표현하는 패션은 1940, 50년대의 뉴 룩이나 샤넬 룩

을 토대로 나타난 퍼드 앤 플레어 실루엣, 파스텔 톤의 색상, 얇고 부드러운 소재, 잔잔한 꽃무늬와 여성적 상식의 로맨틱한 드레스나 트워드 재킷과 스커트, 블라우스의 클래식한 슈트 정장으로, 패션 이미지는 로맨틱 페미닌 룩을 통해 여성의 장식성과 관능성을 보여주면서, 샤넬 룩을 통해 여성의 단정함과 정숙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는 과거 4.50년대의 초여성성에 대한 향수를 반영하는 복고풍 패션 트렌드로 엘리전드 레이디 룩²⁰⁾을 통해 19세기 빅토리아니즘으로부터 개념화 된 우아하고 정숙하면서도 성적 매력 있는 숙녀의 현대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2) 글래머 여성성

글래머 여성성을 표현한 패션 사진의 주요 테마는 이국적인 휴가나 여행, 에로티시즘, 페티시즘, 오리

<표 8> 전통적 여성성의 언어적 요소

구분	언어적 요소	빈도	백분율(%)
패션 이미지	로맨틱한 우아한 화려한 장식적인 드레시한 러서리한 고급스러운	130	42
	세련된 쉬크한 모던한 심플한 미니멀한 절제된	73	23
	클래식한 전통적인 고전적인 복고의 엔틱한	61	20
	여성스러운 페미닌한 부드러운	47	15
	계	311	100
성	숙녀다운 여성스러운 품위있는 우아한 조신한 정갈한 치분한 성숙한	38	48
	섹시한 글래머러스한 관능적인	29	36
	사랑스러운 순수한	13	16
	계	80	100

〈표 9〉 전통적 여성성의 패션 디자인 요소

구분	패션 디자인 요소
아이템	- 드레스, 원피스, 블라우스, 폭 넓은 스커트, 플레어 스커트 - 트윈드 수트, 팬츠 수트, 트렌치 코트, 벨티드 코트, 트윈 셋, 타이트 스커트, 셔츠
실루엣	피트 앤 플레어, 피트 실루엣
색채	핑크, 스카이 블루 등 파스텔 컬러, 화이트, 베이지, 블랙
소재 및 무늬	- 새틴, 쉬폰, 트위드, 캐시미어, 니트, 리넨, 코튼 - 플로럴 프린트 플라 노트, 체크 등
디테일 및 액세서리	프릴, 자수, 레이스, 러플, 리본, 진주, 비즈, 스팅글, 코사지, 브로치, 하이힐 등

엔탈리즘, 80년대 복고풍이나 언더웨어 중심의 패션 스타일 등으로 나타난다. 글래머 여성성의 주요 패션 이미지, 성 관련 형용사는 〈표 10〉과 같으며 패션 디자인 요소는 〈표 11〉과 같다. 글래머 여성성을 표

현한 패션은 주로 신체 노출이나 율곡을 강조한 피트 실루엣의 화려하고 반짝이는 색상과 소재로 코르셋, 브래지어 등 언더웨어, 반짝이는 소재의 드레스나 모피 혹은 레오파드 무늬 등을 통해 화려하고 색

〈표 10〉 글래머 여성성의 언어적 요소

구분	언어적 요소	빈도	백분율(%)
패션 이미지	글래머러스한 색지한 화려한 반짝이는 광택있는	30	34
	드라마틱한 장식적인 로맨틱한 부드러운 섬세한	28	31
	모던한 세련된 쉬크한 도회적인 심플한	18	20
	에스닉한 동양적인 전통적인	13	15
계		89	100
성	글래머러스한, 색지한, 관능적 과감한 야성적인 정열적인 매혹적인 풍만한	29	59
	몽환적인 동양적인 이국적인 신비로운 고풍적인	11	23
	사랑스러운 우아한 여성스러운 기품있는	9	18
계		49	100

〈표 11〉 글래머 여성성의 패션 디자인 요소

구분	패션 디자인 요소
아이템	- 브라, 가터벨트, 실크스타킹, 코르셋 등 언더웨어 - 이브닝드레스, 수트, 뷔스티에, 캐미솔 톱, 모피재킷, 시스스커트, 시스팬츠 - 한복, 기모노 등
실루엣	피트 실루엣, 신체 노출과 율곡 강조
색채	메탈 컬러, 블랙, 오렌지, 옐로, 핑크, 레드 등
소재 및 무늬	메탈 소재, 가죽, 실크, 시폰, 캐시미어, 모피 ; 레오파드
디테일 및 액세서리	깊게 파인 니크라인, 비즈나 스팅글 장식 등 ; 하이힐, 넥타이, 담배, 화려한 보석

20) 1950, 60년대의 복고풍으로 우아하면서도 색시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치려입은 숙녀다운 이미지를 말한다. 여성스러운 블라우스에 무릎길기 스커트, 가슴까지 내려오는 목걸이와 헤어스카프, 뾰족한 힐과 골드 체인 핸드백 등은 모던한 실루엣과 함께 재현되는데, 대표적으로 로맨틱페미닌과 모던클래식 스타일이 있다.

시한 이미지를 연출한 글래머 룩 혹은 페티시 룩으로, 과감한 신체 노출과 함께 불신적 욕망을 자극하면서 종종 자연이나 동물과 결합되어 타자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글래머 여성성을 드러내는 여성과 함께 등장한 남성은 상대적으로 관능적이고 다소 유약해 보이기도 하는 남성성을 드러낸다. 이로부터 글래머 여성성은 성적 매력과 섹슈얼리티를 극대화한 에로틱한 판프파탈 여성성으로 전통적 여성성을 재생산함과 동시에 성식 주체로서의 쾌락적 여성성을 함축한다.

3) 양성적 여성성

양성적 여성성을 표명한 패션 사진은 독립적 직업여성성과 강인한 스포츠 우미의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주요 테마는 수트를 중심으로 한 복고풍 패션

스타일에 여행이나 휴가, 라이프스타일, 계급, 일 등의 패션 이미지와 스포츠나 밀라터리 룩, 핑크 룩 등의 패션 스타일에 거친 스포츠, 글램 락, 모험이나 오지 탐험 등의 패션 이미지로 나타났다. 양성적 여성성의 주요 패션 이미지, 성 관련 형용사는 <표 12>와 같으며, 패션 디자인 요소는 <표 13>과 같다. 패션은 공식적 전문성 복식으로 테일러드 수트나 스포츠 웨어와 같은 남성복 아이템과 실루엣, 소재를 차용하지만, 화려한 컬러와 장식적 디테일 및 액세서리는 여성적 소재의 사용을 통해 남성적 유용성과 여성적 관능성을 혼합하는 야누스 룩(Janus look)이나 남녀 복식 코드의 교환이나 혼합을 의미하는 크로스 룩(Cross look)²¹⁾으로 전통적 남성성과 여성성의 장점을 혼합하는 패션 스타일을 보인다. 2000년 이후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페미컬런 룩²²⁾이나 에슬레틱

<표 12> 양성적 여성성의 언어적 요소

구분	언어적 요소	빈도	백분율(%)
패션 이미지	모던한 세련된 쉬크한 도시적인 심플한 깔끔한 미니멀한 정제된 클래식한	73	44
	섹시한 매혹적인 도발적인 강렬한 화려한	40	24
	스포츠브 경쾌한 다이내믹한 에너지틱한 캐주얼 실용적인 기능적인 테크니컬	34	20
	헤비한 거친 두박한 와일드한 과감한 대담한 핑키한 아방가르드한	20	12
계		167	100
성	매니쉬한 보이쉬한 터프한 파워풀한 와일드 중성적인 반항적인	46	47
	매혹적인 섹시한 관능적인 글래머러스한	27	28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섬세한	21	21
	건강한 열정적인 성실한	4	4
계		98	100

<표 13> 양성적 여성성의 패션 디자인 요소

구분	패션 디자인 요소
아이템	- 테일러드 수트, 트위드 재킷, 니트 카디건 - 모터사이클 재킷, 바이커 재킷, 블루종, 파카, 트레이닝 수트 - 타이트 스커트, 타이트 팬츠, 카고 팬츠, 청바지 - 셔츠, 블라우스, 레이스 톱, 캐미솔 톱, 뷔스티에 탱크톱, 비키니 등
실루엣	H 실루엣, 피트 실루엣, 강조된 어깨, 대담한 커팅, 신체를 노출한 스타일
색채	블랙, 화이트, 브라운, 그레이, 메탈 컬러, 화려한 원색
소재 및 무늬	- 트위드, 가죽, 메탈소재, 면 ; 실크, 쉬폰, 모피 - 체크무늬, 스트라이프 카무플라주, 아디다스 클무늬, 그래픽 프린트 등
디테일 및 액세서리	- 넥타이, 견장, 넓은 벨트, 카우보이 부츠, 중점모, 헌팅캡, 헬멧, 포런지 장식, 운동화 - 셔링, 러플, 시퀸, 레이스, 깃털 장식, 비즈, 진주 목걸이, 하이힐, 토트 백 등

룩, 밀리터리 룩, 유틸리티 룩 등은 이러한 양성적 여성성을 보여주는 패션 이미지로, 남성중심적 직업에서 여성성의 강조를 통해 위화감을 완화시키려는 여성의 전략을 함축함과 동시에, 스포츠와 결합된 양성적 여성성은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여가를 통해 사회관계를 맺고 체력을 증진시켜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관련된다. 또한, 양성적 여성성을 묘사하는 패션 사진에서 남성 모델은 시계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이미지로 연출된다. 따라서 양성적 여성성은 공격적인 남성의 영역을 여성적 섹슈얼리티와 절충하는 패션 코드의 조화를 통해 힘과 권력을 향한 현대 여성의 욕망을 보다 완화된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현대 한국 사회의 지배적 여성성의 범주로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이는 여성성에 대한 개념의 변화 혹은 확장울 의미한다.

4) 미성숙한 여성성

미성숙한 여성성을 나타내는 패션 사진의 주요 테마는 학교생활이나 파티, 동화, 휴가, 운동, 핀업 걸, 팝아트, 60년대 복고풍 패션 스타일로, 미성숙한 여성성을 표현한 주요 패션 이미지, 성 관련 형용사는 <표 14>와 같으며, 패션 디자인 요소는 <표 15>와 같다. 패션은 피트 앤 플레어나 임파이어 라인의 섬세한 주름이 들어간 홀터넥 원피스나 레이스가 달린 캐미솔 탑에 미니스커트로 파스텔 톤의 컬러, 얇고 가벼운 소재, 잔잔한 꽃무늬나 여성적 디테일이 들어간 롤리타 룩(Lolita look)²¹⁾과 카디건이나 블레이저 자켓에 넥타이, 체크 무늬 플리츠 스커트 등의 스쿨 걸 룩²²⁾에 다소 완화된 펑크 룩으로 성적 이미지를 부가한다. 이는 미성숙하고 중성적인 소녀풍과 성적 이미지가 결합된 베이비 돌(Babydoll) 이미지로, 신체 노출과 유아적 순수함을 동반한 수동성과 관능성을

<표 14> 미성숙한 여성성의 언어적 요소

구분	언어적 요소	빈도	백분율(%)
패션 이미지	로맨틱한 엘레강스 장식적인 화려한 드라마틱한 환상적인	25	37
	캐주얼한 베이직 내추럴한 경쾌한 산뜻한	16	23
	도회적인 쉬크한 모던한 미니멀한 심플한 깔끔한 단정한	12	18
	페미닌한 소프트한 산뜻한	8	12
	스포티한 맥디브한 스트리트 펑키한 과감한	7	10
	계	68	100
성	발랄한 잔적한 상류한 귀여운 유쾌한 신선한	16	57
	섬세한 여성스런 순수한 차분한	8	29
	섹시한 글래머러스한	4	14
	계	28	100

21) *Premiere vision l'observatoire, Social trends fashion trends 1998/1999*, pp. 100-105.

22) 페미쿨린(femculine)은 feminine-masculine의 합성어로 로맨틱함과 매니쉬함이 결합해 남자처럼 입은 것 같지만 어딘가 섹시함과 같은 여성적 코드를 나타내는 새로운 매니쉬 룩의 형태이다. 페미쿨린 룩은 섬세함과 추박함, 단순함과 복잡함 등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요소들이 만나서 빚어내는 조화 혹은 부조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김현주, "매니쉬 룩으로 올 가을엔 섹시하게," 2004년 8월 23일, www.trendin.patzzi.com/fashion/trend-fashion-view).

23) 롤리타 룩은 영화 롤리타에서 주인공이 입었던 옷차림으로 세상에 호기심으로 가득찬 눈으로 바라보는 순수하고 귀여운 사춘기 소녀의 분위기에 섹시한 1:짐을 가미한 스타일이다. 서링, 프릴, 퍼프 소매 등이 특징이다.

24) 스쿨걸 룩은 여학생다운 청결하고 귀여운 스타일로, 레이스 주름으로 장식된 흰 블라우스에 바튼이나 리본을 매고 산뜻한 색조나 체크 플리츠 스커트를 입어 로맨틱하면서도 여학생다운 분위기를 살린 스타일이다.

<표 15> 미성숙한 여성성의 패션 디자인 요소

구분	패션 디자인 요소
아이템	- 홀터넥 드레스, 캐미솔 탑, 비키니, 엠파이어 드레스 - 카디건, 블레이저 재킷, 티셔츠, 청바지, 셔츠, 폴리츠 미니스키트, 트랜치 코트
실루엣	파트 앤 플레이 실루엣, 엠파이어 라인, 미니길이, 신체를 노출한 스타일
색채	파스텔, 캔디 컬러; 원색컬러
소재 및 부녀	- 시폰, 실크 등 하늘하늘한 소재, 코튼 린넨 - 플라워 프린트, 스트라이프, 노트, 체크부녀
디테일 및 액세서리	리본, 레이스, 자수, 러플 장식, 굽슬거리는 헤어, 내타이, 긴 양말, 베리제인 슈즈 등

드러내며, 특히 청소년 남성과의 관계에서 장식적 응시의 대상 혹은 성적으로 상치받기 쉬운 존재로서 전통적 여성성을 재생산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한국 사회에서 90년대 이후부터 급진화된 남성적으로 마른 몸과 젊음에의 지향을 암시하면서, 주로 매체를 통해 소비의 주체이자 성 상품으로 빈번히 등장한 여성성을 재현한다.

2. 남성 패션 잡지에 나타난 성

1) 전통적 남성성

남성 패션 잡지에서 전통적 남성성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요 테마는 클래식한 남성 슈트 중심의 패션 스타일과 남성성을 중심으로, 일, 계급, 라이프스타일, 여행과 휴가, 에로티시즘, 연령

등으로 나타났고, 주요 패션 이미지, 칭 관련 형용사는 <표 16>과 같고, 패션 디자인의 요소는 <표 17>과 같다. 패션은 테일러드 슈드로 대표되는 기업적 파워 룩과 드위드 재킷, 던 셔츠, 바지, 스웨터 등의 프레피 룩²⁵⁾으로 단색이나 무채색 계열의 번이나 울 소재, 스트라이프나 체크 무늬에 디테일과 액세서리가 거의 배제되어 기능적인 모던클래식 룩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업적 파워 룩으로 재현된 전통적 남성성은 강한 표정이나 역동적인 포즈와 함께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성취지향적인 이성애적 남성성을 재현하며, 여성을 지나치게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남성 우월적 구시대적 색시즘을 고수한다. 그러나 전통적 올드 맨은 패션에서 과거에 비해 미묘한 관능성을 암시하는 재단을 통해 대안적 남성성과 협상한다. 이처럼 한국 남성 잡지에 나타난 전통적 남성성의

<표 16> 전통적 남성성의 언어적 요소

구분	언어적 요소	빈도	백분율(%)
패션 이미지	모던한 세련된 시크한 심플한 절제된 깨끗한 단정함 미니멀	45	39
	캐주얼한 여유로운 편안한 내추럴 산뜻한 경쾌한 실용적인 기능적	40	35
	클래식한 우아한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30	26
계		115	100
성	보수적인 엄격한 단호한 신중한 진지한 정중한 지적인 냉정한 완벽함	38	52
	활동적인 스포티한 다이내믹한 활기찬 절주하는 날렵한 거침 강한 과감함	27	37
	관능적인 섹시함 젊은	8	11
계		73	100

25) 프레피 룩은 미국 농부 명문학교 아이비리그의 신사복 스타일을 캐주얼하게 해석한 전형적인 보버링 스타일로, 클래식하고 심플하며 실용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준다. 스트라이프나 체크무늬 재킷, 폴로 셔츠와 타이틀 기본으로, 남성은 주로 짙은 남색 재킷에 줄무늬 흰색 셔츠와 화이트나 베이지 계열의 면 바지로 연출된다.

〈표 17〉 전통적 남성성의 패션 디자인 요소

구분	패션 디자인 요소
아이템	- 테일러드 수트, 교복 스타일, 재킷과 팬츠 - 점퍼, 폴로셔츠, 승마복, 사파리 등
실루엣	주로 정돈된 날씬한 실루엣 ; 험형하고 여유로운 실루엣
색채	단색이나 무채색에 모노톤, 블랙, 그레이, 베이지, 아이보리, 화이트, 블루, 카키 등
소재 및 무늬	- 트위드, 캐시미어, 플란넬 등 울 코듀로이, 면 - 스트라이프, 버버리체크 글렌체크, 헤링본 등
디테일 및 액세서리	디테일은 배제되거나 단순한 디테일, 넥타이, 비즈니스가방, 종질모 등

강화는 보수적 한국 사회에서의 남성성의 위치와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의 고수로 볼 수 있다.

2) 마초적 남성성

마초적 남성성을 표현한 패션 사진의 주요 테마는 아웃도어 캐주얼이나 밀리터리 룩 중심의 패션 스타일과 남성성을 중심으로 거친 스포츠, 오지 탐험, 전우애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패션 이미지, 성 관련 형용사는 〈표 18〉과 같고, 패션 디자인의 요소는 〈표 19〉와 같다. 패션은 주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작업복이나 유니폼, 스포츠 웨어 등으로 밀리터리 복이

나 유틸리티 복 등으로 나타나며, 주로 전쟁과 스포츠와 결합된 남성의 힘과 육체성을 과장하지만 때때로 만누드와 액세서리의 착용과 함께 관능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관능성은 마초적 남성성의 강한 남성 동맹의식과 함께 동성애적 암시를 보이기도 하지만, 여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을 지나치게 성적 대상화하거나 보호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남성애적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남성의 위기에 따른 과거지향적 남성의 환상을 재현한다. 그러나 전통적 남성성과는 달리 한국 주류 남성 잡지에서 강하고 터프한 남성상은 소수의 비율을 차지해, 마초적인 초남성은 더 이

〈표 18〉 마초적 남성성의 언어적 요소

구분	언어적 요소	빈도	백분율(%)
패션 이미지	액티브 스포터 기능적 쾌적한 인체공학작 가벼운	9	56
	간결한 깔끔한 미니멀 시크	4	25
	전통적인 클래식한	3	19
	계	16	100
성	강한 파워풀한 거친 총동적 거침없는 비정한	14	67
	움직이는 날렵한 달리는	7	33
	계	21	100

〈표 19〉 마초적 남성성의 패션 디자인 요소

구분	패션 디자인 요소
아이템	- 가죽재킷, 트레이닝 점퍼, 점프수트, 블루종, 면셔츠, 기능성 바지나 면바지 - 기타 테일러드 수트, 트렌치 코트
실루엣	험형하고 느슨한 실루엣
색채	블랙 블루, 화이트를 기본으로 흰 원색
소재 및 무늬	가죽, 기능성 소재와 면소재, 카무플라주 무늬, 색상 대비
디테일 및 액세서리	후드, 지퍼, 레이스업 슈즈, 부츠, 스카프, 목걸이 등

상 한국 사회에서 추류가 아님을 암시한다.

3) 양성적 남성성

양성적 남성성을 표현하는 패션 사진의 주요 테마는 남성성과 패션 스타일을 중심으로 봄, 패티시즘, 휴가, 라이프스타일, 일과 계급, 에로티시즘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패션 이미지, 성 관련 형용사는 <표 20>과 같고, 패션 디자인의 요소는 <표 21>과 같다. 패션은 슬립 앤 파트 실루엣의 신체 윤곽을 강조한 포털 정장에서 세퍼레이츠 세미 정장, 스포츠 캐주얼에 이르기까지 아이템을 한정하기보다는 남성적 외형에 여성적 컬러, 소재, 액세서리의 측면과 자유로운 착상방식을 통해 남성적 코드와 여성적 코드를 결합하는 야누스 룩이나 크로스 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패션 이미지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위치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날씬하고 균형 잡힌 몸과 쾌시너블한 스타일을 통해 관능적이고 자아도취적이며 성적 대상화 된 남성성을 제련해 때때로 동성애적 암시도 보인다. 이러한 양성적 남성성의 등장은 다양한 성 정치적 운동과 성취적 개인주의의

진보를 포함한 맥락에서 남성의 역할과 삶의 조건의 변화를 의미하며, 여성 패션 잡지에 등장한 다수가 양성적 남성성이며 남성 패션 잡지에서도 양성적 남성성이 전통적 남성성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후의 남성성의 개념의 변화 가능성이 암시한다. 그러나 양성적 남성성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가정적인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듯 하나, 여성을 남성의 완벽한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한 장식적 대상이나 성적 대상으로 지부함으로써 동성애나 유약한 남성의 혐의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남성 패션과 남성성의 변화는 여성의 경우 비해 덜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4) 청소년 남성성

청소년 남성성을 표현한 패션 사진의 주요 테마는 하위 문화, 일탈, 스포츠, 휴가, 라이프스타일, 음악, 에로티시즘 등으로, 주요 패션 이미지, 성 관련 형용사는 <표 22>와 같고 패션 디자인의 요소는 <표 23>과 같다. 청소년 남성성은 반항적인 사춘기 소년인면서 동시에 미성숙한 소년의 이미지로, 미성숙한

<표 20> 양성적 남성성의 언어적 요소

구분	언어적 요소	빈도	백분율(%)
패션 이미지	강렬한 로맨틱 엘러건트 화려한 럭셔리한	25	44
	도회적 모던한 세련된 시크한 심플한 절제된	22	39
	이치한 캐주얼한 자연스런 베이직한	10	17
	계	57	100
성	부드러운 우아한 절제된	15	34
	섹시한 매혹적인 트렌디한 감각적인 과시하는	15	34
	강한 터프한 와일드 대담한	14	32
	계	44	100

<표 21> 양성적 남성성의 패션 디자인 요소

구분	패션 디자인 요소
아이템	- 수트, 세미정장, 턱시도 수트, 재킷, 셔츠 - 티셔츠, 니트, 러닝 룩, 와이드 라인 바지 등
실루엣	슬립 앤 파트 실루엣, 신체롭고, 훑찬 커팅선
색채	블랙 앤 화이트를 기본으로 레드 그란 등 원색과 파스텔 톤
소재 및 부피	- 울, 면, 시스루, 실크, 벨벳, 저지 - 스트라이프, 체크, 그래픽 패턴, 뱀피 문양 등
디테일 및 액세서리	머플러, 넥타이, 포켓치프, 피트리빙, 스카프, 목걸이, 선글라스, 악어가죽 백 등

〈표 22〉 청소년 남성성의 언어적 요소

구분	언어적 요소	빈도	백분율(%)
패션 이미지	스포티한 캐주얼한 기능적인	13	25
	재미있는 독특한 평기한	12	23
	현란한 화려한 장식적인	12	23
	세련된 쉬크한 모던한 심플한	15	29
	계	52	100
성	과격하 더프한 거친 충동적인 격렬한, 퇴폐적인	24	41
	솔직한 개성적인 유머러스한 자유로운	13	22
	사신만만한 당당한 활기찬 역동적인	12	20
	부드러운 귀여운 세시한	10	17
	계	59	100

〈표 23〉 청소년 남성성의 패션 디자인 요소

구분	패션 디자인 요소
아이템	점퍼, 자켓, 셔츠, 러닝 뿔, 슬리브리스 셔츠, 청바지, 카고 팬츠, 반바지 등
실루엣	주로 느슨하고 여유있는 실루엣
색채	무채색과 원색 컬러
소재 및 무늬	- 면, 데님, 저지, 기능성 소재 - 스트라이프, 체크, 플라워 패턴 등
디테일 및 액세서리	카우보이 부츠, 운동화, 해군 모자, 스카프, 끈찌 목걸이 등

소년의 몸은 특유의 반항적이고 느긋한 포즈와 결합한다. 패션은 주로 셔츠와 진을 중심으로 부형식의 심플하고 간편하며 다소 단정치 못한 스타일로, 그 런지 룩²⁶⁾이나 힙합 패션으로 나타나며, 때때로 화려한 컬러나 장식적 디테일과 액세서리의 여성적 패션 코드를 차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패션 이미지로부터 나타나는 청소년 남성성은 전통적 남성성에 대해 반항적이면서 사춘기 소녀에 대한 강한 호전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패션을 통해 젊음의 가치와 배타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소비 주체로 주로 스포츠와 클럽 문화를 표방한 세련된 스타일을 지향한다.

5) 무성적 성

무성적 성을 표현한 패션 사진의 주요 테마는 휴식, 사랑, 젊음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패션 이미지, 성 관련 형용사는 〈표 24〉와 같고, 패션 디자인의 요소는 〈표 25〉와 같다. 패션은 모델의 여유로운 포즈와 성별 구분 없는 자유스런 착장 방식과 함께 대체로 매우 단순하고 편안해 보이는 이지캐주얼로 나타나는데, 주로 러닝 셔츠나 드로어즈와 같은 언더웨어 혹은 가벼운 티셔츠에 면바지나 청바지, 무채색 계열의 단색에 편안하고 실용적인 소재로 이분법적 성별 특성을 배제한 젠더리스 룩²⁷⁾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남녀 잡지에 재현된 젠더리스 룩은 남성의 경우 이지캐주얼을 중심으로 다소 여성화된 이미지로,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보이시 룩으로 나타나 남녀 잡

26) 1980년대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된 너털고 혐오감을 주는 지저분한 스타일로 그 근원은 도회적 보헤미아니즘에 있다. 이는 미국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그런지 유희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세기 말 패션 전환기를 향한 영 스트리트 패션의 일종으로 허피의 초라하고 남부한 분위기를 즐기며 하류층의 복식 요소를 가지고 낡은 느낌의 패치 워크, 감지 않거나 체멋대로 자른 머리, 군화 스타일의 부츠, 털실로 짠 옷 또는 모자 등을 활용하여 개성에 따른 창의적인 레이어링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표 24> 무성적 성의 언어적 요소

구분	언어적 요소	빈도	백분율(%)
패션 이미지	캐주얼 실용적 기능적 편안한 이지한 내추럴 스포티한	18	53
	신중한 깔끔한 미니멀한 베이직한 클래식한	10	29
	평키한 스트리트	3	9
	매니시한 보이시한	3	9
계		34	100
싱	나른한 여유로운 낙천적인 권태로운	5	50
	즐거움 유쾌함 아찔한 흥분되는	5	50
	계	10	100

<표 25> 무성적 성의 패션 디자인 요소

구분	패션 디자인 요소
아이템	청바지, 셔츠, 운동화, 니트, 아웃도어 아이템, 손목, 수영복
실루엣	무스 실루엣, 박스 실루엣
색채	블랙, 화이트, 아이보리, 카키, 베이지, 네이비 블루
소재 및 무늬	면, 리넨/체크 스트라이프

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패션 이미지에서 남녀 간의 성별 대립이나 수직적 권력관계는 드러나지 않으며, 성별 간에 존재하는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이 점에서 무성적 성은 남녀 모두의 자유롭고 개인주의적 가치의 표방으로 양성적 여성성과 양성적 남성성의 섹슈얼리티의 강조와 미성숙한 여성성과 청소년 남성성의 연령 가치를 공유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성적 성은 본 고의 남녀 패션 잡지에서 그리 많은 미술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 패션을 통한 성별의 붕괴가 전체 주류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V. 결 론

27) 패션에서 이분법적 성별 가치에 대한 해체는 60년대 유니섹스 붐에서부터 시작되어 이후 80년대 앤드로지너스 붐과 90년대 이후 젠더리스 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의미나 목적에 있어서 다소간 변화를 보이는데, 유니섹스 붐은 남녀평등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의도와 함께 시작되어 남성복을 근간으로 중성적 이미지를 추구했으며, 앤드로지너스 붐은 정치적 의미는 다소 퇴색된 매니시 감각으로, 양성인의 복식 요소나 아이템을 절충 혹은 교환하여 양성인의 이미지를 모두 표현하였고, 젠더리스 붐은 남녀의 의복을 공유하되 특징별식을 날리해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추구하며, 여기에서 정치적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안소현, 이경희,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성개념 변화후이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4권 5호 (2000), pp. 74-76).

선 잡지에 등장한 남성성은 양성적 남성성이 가장 자주 등장한 반면, 남성 패션 잡지에 등장한 여성성은 글래머 여성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게다가 남녀 패션 잡지 별로 '여성적인'과 '남성적인'이라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대상 단어들을 살펴볼 때, 성 정체성을 지칭하는 대부분의 어구들은 19세기 후반에 이분법적으로 개념화 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함축한다. 이러한 내용 분석의 성 유형별 비율 및 언어적 내용으로부터 2000년 이후 한국 주류 남녀 패션 잡지에 표현된 성 담론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려질 수 있다.

첫째, 21세기 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도 한국의 주류 패션에는 여전히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의 지속과 함께 모더니즘의 가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성이 비록 다양한 대안들과의 협상을 통해 패션의 형식상의 변화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남성성이 여전히 헤게모니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적 여성성 또한 지배적 여성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서 유추될 수 있다. 아울러 패션 사진에 개현된 남성애 공포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남성의 위기 의식과 함께 남성우월적인 보수주의적 가치를 드러낸다.

둘째, 여성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여성성과 양성적 여성성의 동등한 지배적 위치는 현대 한국 사회의 여성성의 개념 변화를 암시한다. 2000년 이후 한국 패션은 전통적 여성성의 재생산을 통해 과거와 커다란 단절을 보이지 않음과 동시에, 아직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의 위치에 대한 저항이자 여성성과 남성성의 균형, 수동적인 대상으로서의 여성성과 능동적 주체로서의 여성성의 협상의 차원을 재현함으로써 현대 여성성의 경계의 확장이나 재정의의 가능성을 보이며, 이 점에서 성의 개념이 유동함을 입증한다.

셋째,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과거에 비해 양성적 남성성에 대한 선호가치가 증가한 반면, 남성에게 여성은 여전히 물신적, 장식적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는 여성 잡지에서 양성적 남성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남성 잡지에서 글래머 여성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에서 추론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성 평등을 향한 가치에 대한 남성의 위기 의식을 암시하며, 여전

히 존재하는 성적 불평등을 함축한다.

넷째, 현대 패션에 표현된 다양한 대안적 성의 동장은 성의 다원화를 가져오는데, 이로부터 패션은 갈수록 몸과 성적 욕망을 중심으로 한 여성적 가치와 젊음에의 지향을 드러낸다. 양성적 여성성, 양성적 남성성, 미성숙한 여성성, 청소년 남성성, 무성적 성 등의 대안적 성들의 동장은 20후반 이후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어 나타난 청소년, 여성, 동성애자 등과 같은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암시하며, 이러한 다원적 성의 동장은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와 경합하는 새로운 규율담론의 동장을 야기한다.

20세기 후반 이후부터 패션에 빈번히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성의 해체에 관한 사고는 기존의 성에 대한 모더니즘적 인식의 허구를 드러내면서 사고의 전환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 주류 패션 잡지에 표현된 성을 통해 살펴본 21세기 초 한국의 성 담론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분을 통한 남성우월적, 이성애적, 상류향적, 서구중심적 모더니즘의 가치를 여전히 담지하고 있으며, 실사 패션을 통한 성의 전유가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주류 패션에서 성의 해체는 아직도 주변부로 남아 성의 차이를 통한 유희만을 재현한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로의 변화에 따른 패션에 표현된 사회 내 규율담론의 변화는 갈수록 다원화되고 맥락유동적인 성 정체성의 등장과 더불어, 이들 간의 지속적인 헤게모니적 투쟁을 야기하면서 차후의 여성성과 남성성의 개념변화를 예고한다.

참고문헌

- 김정선, 김민자 (2001). "비토리아시대 유행 복식과 반유행 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I)." 복식 51권 2호.
- 김정선, 김민자 (2001). "비토리아시대 유행 복식과 반유행 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II)." 복식 51권 6호.
- 김윤희 (2002). "복식에 표현된 여성의 꿈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희, 양숙희 (2004). "뮤직비디오 의상에 나타난 남성 이미지 연구-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복식 54권 3호.

- 송명진, 채능석 (2001).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의 표현양상." 복식 25권 2호.
- 안소현, 이경희 (2000).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성개념 변화 추이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4권 5호.
- 이민선 (1999).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19세기 중반 이후를 중심으로-." 복식 23권 6호.
- 최경희 (2007). "Foucault의 후기구조주의적 시각에서 본 패션에 표현된 성." 복식문화연구 15권 2호.
- 최현숙 (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Foucault, Michel. 이규현 (역) (1997). *성의 歷史-제 1 권 앞의 의지*. 서울: 나남출판.
- Hall, Stuart (Ed) (1997).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 London: Sage, The Open University.
- Hollander, Anne (1995). *Sex and Suits*. New York · Tokyo · London: Kodansha International.
- Rubinstein, Ruth P. (1995). *Dress Codes: Meanings and Messages in American Culture*. Boulder · San Francisco · Oxford: Westview press.
- Tseñlon, Efrat (1995). *The Masque of Femininity: The Presentation of Woman in Everyday Life*. London · Thousand Oaks · New Delhi: Sage publications.